

- 녹취록 -

대담 : 자본주의 위기와 계급투쟁

대담 : 제하흐 뒤메닐(Gérard Duménil) 파리10대학 상과대학 교수

이채연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김장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이채연 : 뤼마니떼축제장에서서의 첫 일정이다. 우선 뒤메닐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코리아사람을 대표해서 뒤메닐교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먼저 어제 이야기하신 관리자계급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급과 연대하게 됐는지 묻고 싶다.

뒤메닐 : 지금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술한 적도 없고, 아직 그에 대한 답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아마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관리자계급이 노동자계급과 연대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관리자계급은 역사적으로 2차대전 이후 노동자계급과 연대했다는 역사적인 분석을 했을 뿐이다. 다시 새로운 관리자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에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이채연 : 그렇다면 노동계급이 먼저 주도해서 관리자계급에게 연대의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뒤메닐 :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두 계급간의 사회적 타협을 통한 연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 계급의 성격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형태를 보였다.

“위기를 모면하는 데 수십년 걸릴 것”

이채연 : 그러면 앞으로도 케인즈주의적인 경제성장정책이나 분배정책 같은 것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뒤메닐 :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 조치들은 모두 금융을 지지하는 방향이다. 금융기관의 신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들이 2008년 9월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들은 현 경제위기를 맞아서 1929년, 1932년에 있었던 위기의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고 있다. 미국이 2008년 9월에 일어났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내놓았는데, 케인즈주의와 유사점을 보였다. 1929년 위기 당시 케인즈가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위기의 규모를 많은 부분 약화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1929년 위기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규모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위기상황들이 조기에 종영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상황은 이전에 비해 아주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는 데는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미국정부가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단이 더 이상 마땅치 않다”

“현 위기상황이 심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급진적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이체언 : 미국정부가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단이 더 이상 마땅치 않다. 그동안 미국국채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구입했는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다른 나라가 구입해줄 수 없다. 또한 재정적자를 조달하게 되면 구축효과(crowding out)에 의해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 내서 민간은행의 부실자산을 구매하고 있다. 이런 식의 중앙은행 정책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하고,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다. 시장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과연 이런 정책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재 은행의 손실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

뒤메닐 : 미국의 재정적자규모는 굉장한 수준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과 비교해볼 때 7% 이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금까지 외국투자자들에게 국채를 판매함으로써 메워왔다. 현 상황에서는 국채판매를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식이 불가능해 보인다. 때문에 미국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앙은행의 역할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달러위기로 이어지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경제위기는 달러의 위기로부터 발생했다. 물론 서브프라임에서 시작됐지만 달러의 위기는 항상 존재해왔고,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크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미국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물론 미국은 전후 뉴딜정책과 같은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의문이 있다. 더구나 현재의 위기는 그 위험의 수위와 규모가 아직도 가늠되지 못한 상태고,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위기상황이 계속 심화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책들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체언 : 미국이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재정적자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 해결책은 비상수단을 쓰는 것 밖에 없다. 그 비상수단이라는 것은 정부가 직접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 즉 국채를 판매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찍어내는 방법이다. 두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화폐개혁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통화를 많이 만드는 것,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것 등 두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뒤메닐 :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재정적자를 지원해왔다. 그리고 아직은 특히 중국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위기대응책으로서 전망한, 화폐가 직접 너무 많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를 많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 현재의 경기침체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화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입장들은 위험하게도 극우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걱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지금 상황에서의 위험은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달러 하락은 미국에게 지금의 경제성장속도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성장속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이다. 미국은 실제로 전쟁을 통해 자신의 위기상황을 극복해왔다.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엄청난 규모였다. 1929년 위기시 재정적자규모의 약 2배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준비를 통해 위기상황을 모면했다. 전시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동결했고, 생활수준 향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시 미국은 민간부문에 많은 투자를 했다. 알루미늄 민간산업의 3분의1을 정부가 투자할 정도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집행됐다. 전쟁으로 인한 생산능력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부주도하에 생산부문을 이용하면서 위기상황을 모면하는 정책들을 폈다. 다시 말해 만약 달러하락이 지속되면 미국은 지금의 경제성장속도를 비껴야 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방향을 수정했던 것처럼 지금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화될지, 달러가 얼마나 하락할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들이 더욱 심화되면 미국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보다 더욱 급진적인 정책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체언 :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생기진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달러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화의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미국의 수입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입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두번째는 달러시스템 즉, 달러유통의 삼각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달러유통의 삼각관계라는 것은 일반 공업국에서는 자원이나 에너지 등을 수입하는데 달러가 필요하고, 자원을 가진 중동이나 라틴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군사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한 관계를 말한다. 미국의 군사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한 자원부국들, 그리고 자원을 필요로 하는 유럽이나 아시아로서는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되는 이런 삼각관계가 이제는 바뀌고 있다. 종래 무기체계가 아닌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제3세계에서 새로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달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경제성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경제대국의 지위 상실할 것”

뒤메닐 : 달러의 위기는 미국 내에서의 수입상품 가격을 높일 것이 맞다. 그리고 달러가격의 하락은 다시 말해 엔화나 유로화 같은 다른 화폐의 가격상승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달러가격을 부추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달러가격 하락의 영향을 무역부분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국제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달러의 양은 무역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양을 넘어서고 있다. 때문에 달러 불안정성의 가속화는 국제금융시장의 질서를 위반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는 달러를 대체할 다른 화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위기는 자본주의의 성격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기다. 달러의 위기는 실물경제와 금융에 엄청난 위협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앞서 우리는 가장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위기극복을 위해 경제성장의 속도를 늦춘다고 해도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미국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번째로는 현 경제성장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불균형한 경제성장은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외부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을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불균형의 증가,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미국을 떠나는 기업들로 인해 미국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 갈 것이고, 현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가 20~30년 후에 다시 도래할 만큼 자본주의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할 것이다.

달러유통의 삼각관계

이체언 : 국제사회에 달러가 계속 유통되기 위해서는 달러유통의 삼각관계가 중요하다. 달러유통의 삼각관계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 미국의 군사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자원부국들은 달러를 필요로 하고, 이것은 철강석이나

석유의 결재수단으로서의 달러지위를 강화한다. 공업국들은 자원을 사기위해 달러를 필요로 하고, 자본이 많은 나라는 자기나라 방어를 위해 달러를 사려고 한다. 그렇다면 자원부국들이 더 이상 미국의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공업국들도 달러가 필요 없게 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다.

뒤메닐 : 달러가치 하락의 결과, 역시 계속적으로 달러가치는 하락할 것이며 자원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이는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다른 상황은 자원부국들이 달러가 아닌 유로나 엔화 등의 다른 화폐로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판매가를 올릴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이게 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무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위기에서 이 문제는 핵심적인 분석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이체언 :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올랐다. 무기와 유가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현재 미국 자본주의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위기탈출전략이 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의 불균형적인 경제성장과 헤게모니 상실은 현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
“신자유주의의 내부모순에 의해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목표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

뒤메닐 :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는 계속적으로 위기순간에서 탈출해왔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현재의 자본주의도 위기를 모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정치적인 대립을 통해 또 다른 형태로 변모할 것이다.

1929년의 위기 당시 자본주의는 여러번 자신의 체제를 변화시켰다. 그중 하나가 금융제도의 변화다. 이 당시 자본주의는 규제강화와 거시정책을 통해 위기 탈출과정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였다. 어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는 사회적 동의를 받는다. 현재의 자본주의가 극소수 상층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체도로 달려왔다면, 지금의 위기는 이러한 경제체도의 지속성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새로운 형태의 사회 역시 여전히 상층부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절제된 모습의 자본주의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불균형적인 경제성장과 헤게모니 상실은 현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1929년 이후 노동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적 타협이 재현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자체가 내포하는 문제로 인해 극소수 상층계급의 이익만을 위한 지금의 방식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때 대중계급의 투쟁은 사회를 좀 더 진보적인 형태로 바꿔내는 힘이 될 것”

분명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변화된 계급관계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전후 사회적 타협 형태로의 회귀는 불가능할 것이다. 전후 사회적 타협은 자본가계급의 소득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 대중계급의 투쟁역량을 볼 때 이런 식의 타협은 불가능해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또 다른 형태로 변환하겠지만, 대중계급의 역량문제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계속 생성되어나갈 것이라고 본다.

다시 강조하면 현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투쟁이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계급투쟁을 통해 역사가 경험한 최대치의 사회적 타협의 순간으로 되돌아가거나 그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것을 바꿔낼 수 있다고 본다. 공공보건과 교육의 문제 등에서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에 없는데, 이런 때 대중계급의 투쟁은 사회를 좀 더 진보적인 형태로 바꿔내는 힘이 될 것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겠다. 2차대전 이후 두가지 부분이 존재했다. 첫번째는 정치개혁이다. 국가의 개입으로 기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즉 국가주도의 경제정책들은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켰다. 두번째는 대중계급과 관련된 것인데 이 기간동안 사회복지제도, 교육기회, 구매력 등에서의 향상이 있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다른 형태로 변환될 때 이 두가지 부분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분명 자본주의는 위기극복을 위해 정치개혁, 즉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펼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중계급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계급투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어도 전후 대중계급이 쟁취한 부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대중계급의 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장민 : 어제에 이어 신자유주의 위기 분석과 우리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뒤메닐교수와 갖게 돼 매우 기쁘다. 뒤메닐교수는 어제 발표한 논문이 국제 헤게모니에 대한 분석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상층계급이 더 이상 미국이라는 국가에 연연하지 않고 세계정부성격의 제도권을 형성하여 보호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다음의 전망은 상층되지만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상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광범한 개혁을 할 것이고, 이는 사회적 타협과 양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 결과 유럽은 신자유주의 경향을 강화하겠지만, 미국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며 신자유주의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질문이다. 미국상층부가 국가를 대신하는 세계정부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 구체적 현상에 대해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그런 개혁을 통해 위기를 모면한다면 신자유주의를 약화시키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새로운 고립주의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오바마정부가 그런 개혁의 주체가 될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다.

미국의 형식적 민족주의로의 회귀

뒤메닐 : 나는 이윤이라는 개념으로 미국의 상층계급과 미국이 분리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서 이윤은 미국의 자본주의 상층계급이 자신의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투자하거나, 미국이라는 조국을 경제적으로 부정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유발시킨 원인이다. 금융권, 비금융권 할 것 없이 미국의 자본가들은 자신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나라로 근거지를 옮겼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그 근거지로 됐다. 이것은 사실 자본가에게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었지만, 결국 현 위기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었다.

국제 상층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같은 기관을 볼 수 있다. 이 기관들의 역할은 한국의 경제위기가 일어났던 그 순간에 여러분도 확인했을 거다. 국제무역기구들은 결국 자본가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맞닿아있다.

질문에서처럼 정치군사적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를 말한 것은 아니다. 더 정확하게는 ‘민족주의적 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형식적 민족주의로 미국이 다시 회귀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경제대국으로서의 헤게모니를 상실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중동사태 등에 개입하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정치군사적 의미에서 보면 이미 미국은 민족주의국가다. 그러나 내가 말한 민족주의란 경제와 관련한 것이다.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민족주의경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세계정부라 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창설되고, 이것이 자본가계급과 미국을 만족시킨다면 민족주

의경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미국의 민족주의경향들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헤게모니 쇠퇴를 막기 위한 것이라 본다. 여기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경제대국으로서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중대한 개혁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현대자본주의의 위기 : 또다시 찾아온 금융헤게모니의 위기

일단 세가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1929년 위기로 인해 등장한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은 이 시기가 한참 지나고 난 후 또 다른 위기로 인하여 변모했다. 이후 자본주의는 축적된 위기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맞았고 1970년대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현 위기가 균형을 지키며 다른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 의문이다. 위기의 상황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와 폭력적인 형태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지금 말한 분석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자본주의는 1929년 당시 거시적인 정책만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강조한 것은 전쟁, 즉 군수산업을 통해 위기상황을 모면했다는 것이다.

과연 자본주의의 위기모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이번이 자본주의의 마지막 위기가 아닐 것이고, 마지막 경기침체도 금융위기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여러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19세기부터 중요한 위기를 거쳐 왔다. 일단 첫번째 위기를 금융헤게모니의 위기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 타협의 산물인 케인즈주의의 위기가 있었고 지금의 신자유주의적인 위기로 나눌 수 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적인 위기는 1929년의 위기상황, 금융헤게모니의 위기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자본주의 상층계급의 수익률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위기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45년과 1970년대의 위기상황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찾아온 금융헤게모니의 위기를 나는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의 위기의 순간에는 계급투쟁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계급의 전취물이 달라진다”

자본주의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 계급투쟁이 있었다. 분명히 자본주의에는 계급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계급투쟁의 결과에 따라 계급의 전취물이 달라진다. 이것이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다. 현 위기상황에서 발견되는 상층계급으로 집중된 수익은 이전의 위기들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집중도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비할 바 없이 과잉된 수익의 집중도를 그 이전 수준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맑스의 『자본론』은 초기 축적에 대한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맑스는 각 시기의 사회를 주도하는 자본가계급과 대중계급의 투쟁에 근거해 축적의 상황을 분석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계급투쟁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는 것이다.

이체언 : 진지하고 성의있는 토론에 깊이 감사하다. 오랜 시간을 함께해주어 고맙다. <끝>